

광주시 'AI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집중

인재양성 사다리 시스템 '주목' 올해부터 SW 미래채움 본격화 2027년 개교 목표 영재고 추진 AI사관학교 3년간 600여명 배출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의 단계별 AI 인재양성 사다리가 주목받고 있다.

초·중등 학생의 관심 유도를 통한 AI 입문교육부터 AI영재고, 대학의 기업 맞춤형 전문교육, AI대학원, 인공지능사관학교까지 탄탄한 교육시스템이 돋보인다.

광주시는 19일 "실력있는 AI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AI중심도시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탄탄한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AI 인재 저변 확대를 위해선 초·중등 단계부터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올해부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주월동 옛 광주과학고 부지에 교육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강사를 육성해 AI, 로봇,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신기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12월 개관 예정인 SW미래채움 광주센터는 2025년까지 1만여 명의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AI 영재고 설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광주과

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기획용역비 10억원이 반영돼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전남대(에너지), 조선대(헬스케어), 호남대(자동차), 광주과기원(원천기술) 등 4개 대학을 AI 융합대학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대학과의 긴밀히 공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24년까지 150억원(국비 127억원, 시비 23억원)이 투입된다. 광주과기원 AI대학원은 최근 AI 1호 박사를 배출하는 등 AI 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AI사관학교는 2020년 첫 모집을 시작으로, 지난 3년 간 탄탄한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통해 총 600여 명의 우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 인원을 18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고, 단일과정이던 커리큘럼도 복수 과정으로 확대했다.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행정력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인재양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남대, 구글 클라우드의 공식 교육파트너인 썬아이코 어이앤씨와 협약을 맺고 AI 융합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수행사인 NHN클라우드 광주연구개발센터도 최근 사무실 개소와 함께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본사 파견 인력은 물론 지난해 9월 개소한 NHN 아카데미에서 7개월간 웹개발자, NHN 인증과정을 수료한 지역 전문인

력도 함께 근무한다. 센터를 통해 매년 30여 명씩 180명이 채용될 계획이다.

센터는 시와 NHN클라우드 간 AI 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의 외부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 광주캠퍼스 역시 지역 AI 스타트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강기정 시장은 "AI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야만 광주가 그동안 노력해온 AI 사업 성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맞춤형 인재양성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초·중·고·대학, AI 사관학교 등 각자 역할에 맞게 지속적으로 협력해간다면 광주가 명실상부 AI중심도시로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서울서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연다

23일까지 목동아파트 단지서

전남도는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서울 목동아파트 2단지과 14단지에서 '전남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직거래장터에선 여수 돌산갓김치, 순천 된장·고추장, 광양 매실, 곡성 멜론·찰옥수수, 고흥 마늘, 보성 감자, 무안 양파 등 전남 사·군에서 생산한 제철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

청정바다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한 영광 굴비, 완도 전복, 고흥감, 미역, 다시마, 건어물, 신안 천일염·새우젓 등

수산물도 함께 선보인다.

전남도는 지역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과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참여 유도를 위해 서포터즈 가입자에게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직거래장터 이후에도 전남 농수특산물을 꾸준히 구매할 수 있도록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10만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목동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전남에서 생산하고 전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역대 민선시장을 초청해 주요시정을 설명하고 시정자문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섭(왼쪽부터)·고재유 전 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강운태·박광태 전 시장. 광주시 제공

전남 '어촌특화상품' 어가 소득증대 '톡톡'

도, 상품 개발·판매 등 지원

전남 해역에서 생산한 해조류를 이용해 만든 어촌특화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바다 김 그대로 김국'과 '마음미역' 등 어촌 특화상품 개발·판매를 지원한 결과 어촌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상품 기획부터 포장 디자인, 시제품 생산까지 지원해 만든 성과물이다.

어촌이 상품을 본격 생산하면 전남 어촌 온라인 직거래망 '바이씨' (buysea.co.kr)를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2020년 시제품을 생산한 고흥 신평어촌계의 '마음미역'은 지난해 22만4297봉(1억7481만원)을 판매했다.

고흥 신평어촌계는 2016년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20년 1월해 조류가공공장을 준공했다.

2020년 '마음미역'을 처음으로 개발한 데 이어 2022년 '마음담은미역', 2023년 '사각사각 다시마' 등 3가지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매년 2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남 임하 어촌계의 '바다 김 그대로 김국'은 2017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어촌·수산업·완도해양바이오센터 등과 주문자 상표 부착(OEM) 양해각서 체결 후 3년여의 연구·개발, 평가·개선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바다 김 그대로 김국'은 바이씨, 해남 로컬푸드, 해남 미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난 5월엔 해남군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선정됐다. 수출과 흡소품 진출도 협의 중이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조사업 생산·공급기반 1070억 투입

사일리지 제조 등 13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국내산 조사업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 사업에 국비 357억원을 포함해 총 1070억원을 투입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조사료 재배 면적은 6만ha로 전국의 36%를

차지한다. 도는 올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60억원', '기계·장비 구입 142억원', '조사료 종자구입 84억원', '퇴·액비 32억원', '가공·유통시설 39억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90억원', '임도중 파종 12억원', '품질관리 7억5000만원' 등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최항지 기자

역대 광주시장 '한자리'... 지역발전 지혜 모았다

역대 민선시장 초청 간담회

고재유 "광산업 지원 활성화" 박광태 "실사구시 정신 시정" 강운태 "시민 부드럽게 모셔라" 이용섭 "AI산업 특화에 집중" 윤장현 전 시장 개인 일정 불참 강기정 "새로운 광주 열겠다"

역대 민선 광주시장들이 광주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역대 민선시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8기 1주년을 기념, 광주의 미래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역대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7기 초반인 2018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민선 2기 고재유 시장, 3·4기 박광태 시장, 5기 강운태 시장, 7기 이용섭 시장 등이 참석해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시장들이 광주발전의 길을 닦고 개척해준 것을 토대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말

했다.

이어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군공향 이전사업 등 민선8기 광주시 주요 시정에 대해 설명했다.

고재유 전 시장은 "2000년 시작한 광산업이 민선3~7기를 거쳐 꾸준히 발전했다. 당시 70여 개에 그쳤던 관련 기업이 현재 3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도 8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관련 지원법이 최근 마련된 만큼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2기에 어렵게 조성한 쓰레기매립장이 5년 뒤엔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다. 대책으로 공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근 쓰레기 처리방향이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고려, 후유증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광태 전 시장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시정을 잘 펼쳐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을 하늘처럼 받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잘사는 광주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강운태 전 시장은 "비엔날레를 매년 찾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작품은 물론, 시내

곳곳에 설치된 파빌리온과 주제 등 모든 것이 잘 구성된 것 같다"며 "올해 비엔날레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게'처럼 민선8기 시정이 시민을 부드럽고 여러게 모시면서 내실은 강하게 가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세계대회 유치,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주과기원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경쟁력있는 기술 개발 등도 추진,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달라"고 말했다.

이용섭 전 시장은 "광주가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킨데 이어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한다면 광주의 일자리는 환히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산업을 특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 시장은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축적의 시간을 통해 오늘의 광주가 있을 수 있었다"며 "역대 시장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수 기자